

Economy Brief

국내 시총, 1등 자리가 바뀔까?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SK하이닉스 시총 1조 달러 클럽 가입과 함께 삼성전자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국내 시총 1위까지 넘볼 태세 현재의 반도체 쓸림 현상이 철저히 이익 사이클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위 버블 리스크와 다소 다른 결이라는 판단임

오히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음은 국내 주식시장과 경기에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되며 이후 반도체 슈퍼 호황의 수혜, 즉 낙수효과가 주로 어디로 흘러갈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

SK하이닉스, 시총 1조 달러 클럽과 함께 국내 1등 자리까지?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클럽 가입과 함께 삼성전자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국내 시총 1위까지 넘볼 태세이다. 5월 28일 기준 삼성전자(우선주 제외)의 시가총액은 약 1,749조원이며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616조원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 규모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규모의 약 92% 수준까지 바짝 다가섰다. 국내 주식시장 랠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1일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율은 약 39% 수준에 불과했다. 약 1년만에 국내 시가총액 1, 2위 기업간 격차가 근소한 수준까지 좁혀진 것이다. 동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약 1,190%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 주가는 약 440% 상승한데 그친 영향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변하는 양대기업의 시가총액 격차가 축소된 원인에는 SK하이닉스가 HBM을 선점한 효과와 함께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집중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내 품목별 수출 흐름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25년과 26년(1~4월) 반도체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2.2%, 148% 증가한 반면에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5년 0.4%, 26년(1~4월) 32.2%에 그치고 있다. 올해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도체 수출증가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 즉 반도체 수출 슈퍼 호황 사이클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점에서 시총 1등 자리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뜨거운 경쟁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하여 <그림1>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K하이닉스/삼성전자 상대 시총 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동 반도체지수의 추가 상승 시 이들 기업간 시총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가 시총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반도체 업황의 국내 낙수효과가 중요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말처럼 유례없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음은 국내 주식시장과 경제에는 긍정적 신호다. 물론 이들 대장주 업체로의 추가 혹은 자금 쓸림 현상으로 주식시장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버블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의 반도체 쓸림 현상이 철저히 이익 사이클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위 버블 리스크와 다소 다른 결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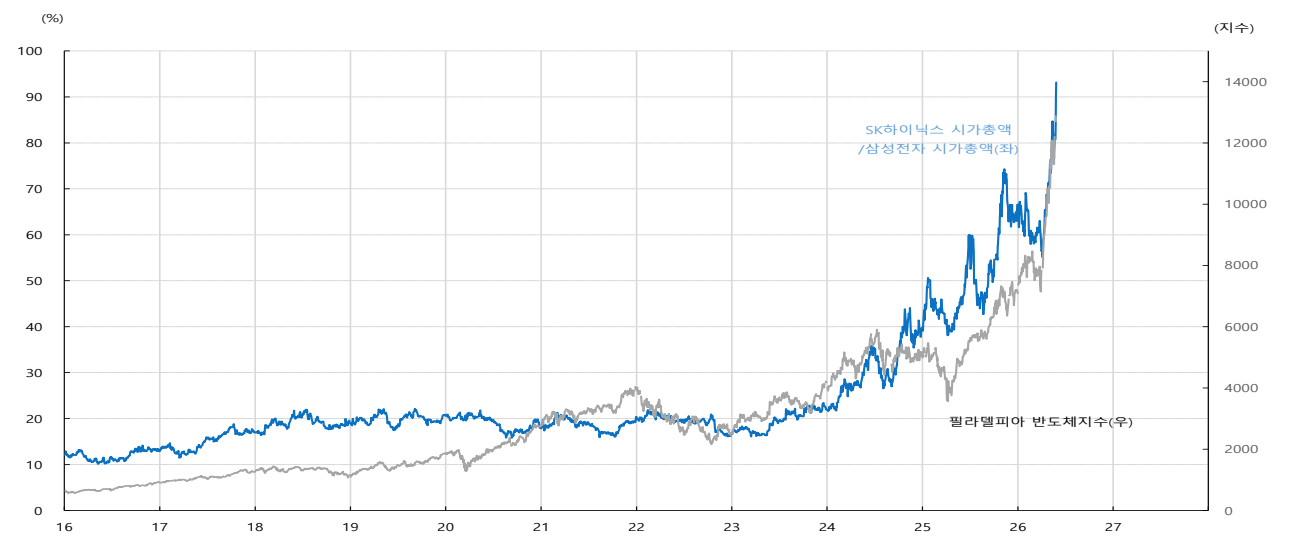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쓸림 현상이 국내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과 AI산업 확장성이 낳은 이례적 현상이다. 더욱이 올해 전세계 주식시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AI 및 반도체산업 기반이 단단한 미국, 한국, 대만 및 일본 주식시장이 여타 주요국 주식시장에 대비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우려보다는 현 AI 및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즐겨야 할 시기다.

중요한 것은 국내 시총 1위 자리를 어느 기업이 차지하는 것보다 반도체 업황이 주식시장은 물론 경기에 미칠 영향 혹은 낙수효과다. 한국은행은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기존 2.0%), 2.1%(기존 1.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6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500억 달러로 24년(1,231억 달러) 대비 배 이상 상향 조정했고 27년에도 1,90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더욱이 <표1>에서 보듯 반도체 경기와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내 GDP성장률이 추가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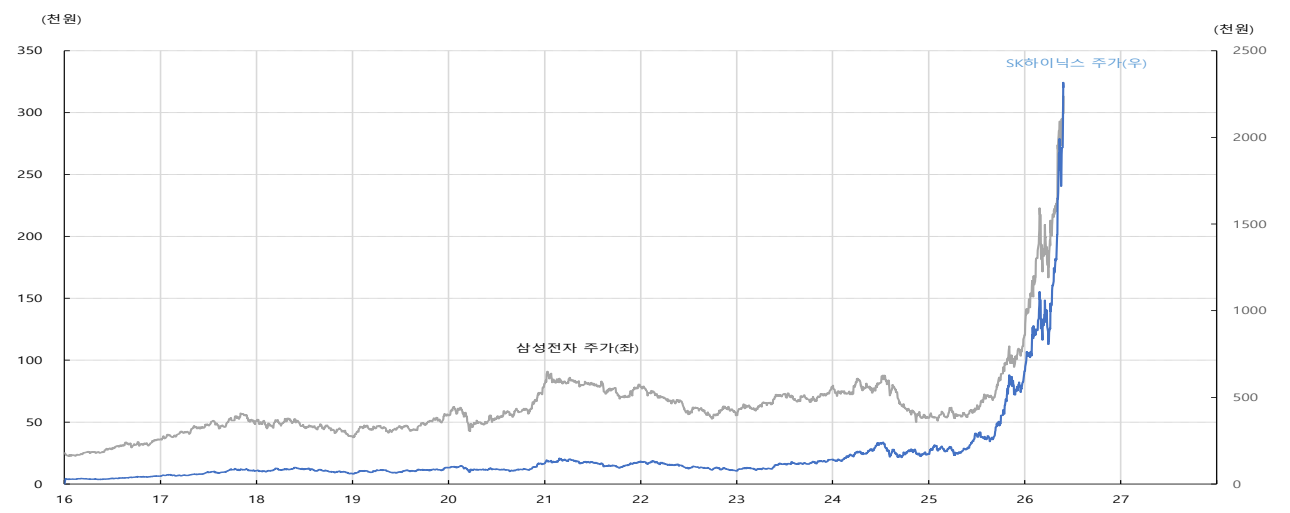
쏟림 현상 혹은 양극화라는 일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는 국내 경기 확장 사이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국내 경기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시총 1위를 두고 양대 반도체 기업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현상은 국내 주식시장과 경기에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되며 이후 반도체 슈퍼 호황의 수혜, 즉 낙수효과가 주로 어디로 흘러갈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1.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대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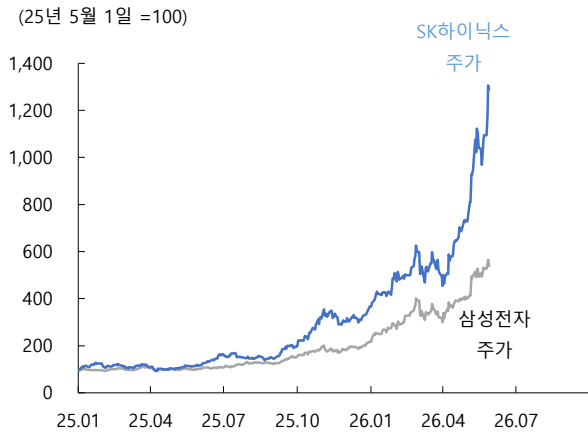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지난해 5월초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 비교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압도적 상승률을 기록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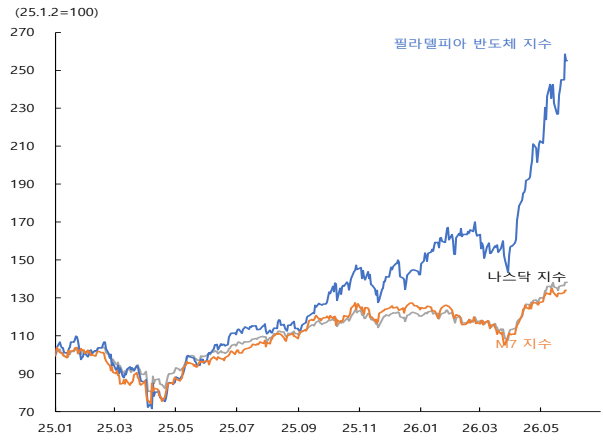


표1. 유가와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시나리오별 국내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전망)

(%, %p)	2025년	2026년	2027년
기본 전망	1.0	2.6	2.1
반도체 경기(낙관)		+0.5	+0.3
반도체 경기(비관)		-0.3	-0.2
중동 상황(조기 진정)		+0.1	+0.1
중동 상황(교착 장기화)		-0.5	-0.3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